

2 승렬샘과
0 함께하는
2 수능특강
2 완전정복



독서

승렬쌤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완전정복
〈독서〉

전하는 말

안녕하세요, 조승렬입니다. 본 책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들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문제들을 엮은 책입니다. 연계 교재에서의 연계율이 줄어들고, 직접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인 금년도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는 비슷한 주제, 비슷한 유형을 푸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4년~2020년, 총 7개년의 수능 연계 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기출문제(수능, 모의고사)를 분석하여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들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지문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기출을 돌리는 것이 정형화된 국어 공부 방법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책이지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본 책을 풀기 전에는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를 다 풀 것.
2.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지문을 분석할 것.
3. 타이머를 준비할 것.
4. 샤프와 지우개를 준비할 것.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학생은 본 책을 바로 덮어주시고 위 사항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 책을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부 교과서 개념학습]을 풀기.
2. [2부 적용학습]의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은 한 지문씩 번갈아 가면서 풀기.
ex) 인문예술01 → 사회문화01 → 과학기술01 → 인문예술02 → ……
3. [2부 적용학습]의 <주제통합>을 풀기.
4. [3부 실전학습] 풀기.

또한 각 지문을 풀기 전에는 타이머로 시간을 반드시 재시길 바랍니다. 한 지문을 끝내면 소요된 시간을 반드시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조승렬이었습니다.

목차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1-1. 엘리야데의 신화론 ... 6
- 1-2.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 ... 9
- 1-3.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 14
- 2-1. 바코드 ... 20
- 2-2. 사후 가정 사고 ... 23
- 2-3.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 28
- 2-4. 보링거의 추상 충동과 감정 이입 충동 ... 32
- 2-5. 진품과 위조품 ... 36
- 3-1.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과 종교 조직의 유지 ... 40
- 3-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 43
- 3-3. 조광 유리 ... 48
- 4-1.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 52
- 4-2.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55

[2부 적용학습]

<인문예술>

- 01.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 62
- 02.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 65
- 03. 포토리얼리즘 ... 70
- 04. 부와 행복의 관계 ... 78
- 05. 사전 학파론자들의 토지 개혁 ... 81
- 06. 영화 음향의 다양한 차원 ... 86
- 07. 조선 후기 서양 과학의 수용과 주자학적 사유의 변화 ... 90
- 08. 진보 사관의 형성과 변화 과정 ... 94
- 09. 존재론적 환원주의 ... 98
- 10. 고대 그리스 건축의 주범 ... 101
- 11.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 ... 106
- 12. '음악적 시간'의 발전 과정 ... 112
- 13. 유럽의 대서양 진출과 그 영향 ... 115

<사회문화>

- 01. 위험 분석 모델 ... 122
- 02. 지리적 집중 모형 ... 126
- 03. 행정 관료의 책임성 문제 ... 129
- 04. 부가 가치세 ... 133
- 05. 국제 정치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 140
- 06.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 143
- 07. 매클루언의 매체론 ... 148

- 08. 완전 경쟁 시장 ... 151
- 09. 제삼자를 위한 계약 ... 156
- 10. 지정학의 개념과 역사 ... 160
- 11. 정당 정치와 국고 보조금 ... 163
- 12. 이자율과 총수요 ... 172
- 13. 19세기 신건축 운동 ... 180

<과학기술>

- 01. 자기 냉각 ... 192
- 02.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 ... 195
- 03. 소독약의 화학적 원리 ... 200
- 04.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세계선 ... 203
- 05. 프라이온 ... 207
- 06. 그래프와 최소 신장 트리 ... 209
- 07. 빛 덧의 원리와 활용 ... 218
- 08. 자율 주행 자동차와 라이다 센서 ... 222
- 09.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 ... 229
- 10. 비행기의 강하와 착륙 ... 238
- 11.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 ... 246
- 12. 튜링의 반응-확산 모델 ... 249
- 13.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 ... 258

<주제통합>

- 01. 동양에서의 천과 인의 관계 ... 270
- 02. 사고와 시스템 ... 281
- 03.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 ... 290
- 04. 형벌의 정당화 이론 ... 297
- 05. 음악의 보편성과 가믈란 음악 ... 313
- 06. 활성화 확산과 아이콘 ... 333
- 07. 리벳의 자유 의지 실험 ... 342
- 08. 미학과 과학에서 닥음의 의미 ... 350
- 09. 생물 계통수와 몬테리우스 형식학 ... 368
- 10. 인간과 기술의 관계 ... 376
- 11. 뉴턴주의와 쿨롱의 법칙 ... 383
- 12. 인간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 ... 409
- 13. 대중과 대중문화 ... 419

[3부 실전학습]

- 01. 국제 정치의 성립 과정 ... 428
- 02. 수소를 얻는 방법 ... 436
- 03. 포스트휴머니즘과 하곡학 ... 450
- 04.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 ... 462
- 05. 다수결의 진리 가능성에 대한 이론 ... 476
- 06.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 480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1-1. 엘리아데의 신화론
- 1-2.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
- 1-3.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 2-1. 바코드
- 2-2. 사후 가정 사고
- 2-3.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 2-4. 보링거의 추상 총동과 감정 이입 총동
- 2-5. 진품과 위조품
- 3-1.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과 종교 조직의 유지
- 3-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 3-3. 조광 유리
- 4-1.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 4-2.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부) 1-1. 엘리아데의 신화론

[2018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루마니아 출신의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아리안 문화에 대한 신비화 전통을 계승한 신화학자이다. 엘리아데가 살았던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추구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엘리아데가 실제 목도한 것은 전체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1, 2차 세계 대전의 비합리적인 폭력과 그로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었다. 엘리아데는 이와 같은 타락과 폭력은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에서 신성(神性)이 제거되면서 인간은 존재의 존엄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엘리아데는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힘으로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아데는 그리스 철학에서 신화를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합리성과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면서 신화를 '실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엘리아데는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신화를 '참된 이야기',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 신화란 '실재하는 사실'이며, 인간 행위의 모범이 되고, 그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엘리아데가 내린 신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화는 태초의 시간, 즉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하여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 행동,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이와 같은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인간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연(再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회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인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고대 사회의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의례' 혹은 '제식'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화를 재연, 기억함으로써 사물의 기원의 비밀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례 행위를 통해 신화를 살려냄으로써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엘리아데

는 현대인들도 신화에 대해 고대 사회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엘리아데는 '성(聖)'과 '속(俗)'의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재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동이 자연적인,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돌이 있다고 하자. 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그 돌이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고 할 경우 그 돌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 역시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행위를 재연하고 신화적인 사건을 반복하는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고대인들은 어떤 존재에 의해 이미 경험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행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것이며, 그의 삶은 타자에 의해 창시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산물이나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물들은 그것들이 얼마만큼 초월적 존재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실재성을 얻게 된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냥이나 농경, 유희나 투쟁 등 의미를 지닌 모든 행위는 '성(聖)', 즉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제의적 행위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박탈되면서 '속(俗)'된 것이 되어 버렸다.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보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초월성을 결여한 상황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서 '속'에 대한 거부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제의를 통한 신화의 재연 속에서 시간은 정지되고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되면서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화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② 현대인들은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고 반복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③ 엘리아데가 살았던 시대의 유럽인들은 세상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보시키고자 하였다.
 - ④ 엘리아데는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한 원주민들은 '속'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엘리아데의 신화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인간이 처한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고 보았다.

- ①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연 것은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될 수 있겠군.
- ② 마늘과 쑥은 음식이라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성(聖)'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겠군.
- ③ 환웅이 주관한 일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단군 신화의 내용은 의례나 제식의 힘을 통해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재연할 필요가 있겠군.
- ⑤ 오늘날 무당이 제의에서 사용하는 칼, 거울, 방울이 천부인 세 개와 연관된다면 실재성을 얻을 수 있겠군.

2. <보기>를 '엘리아데의 신화론'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나라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이에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 개(칼, 거울, 방울)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어느 날,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환웅은 마늘과 쑥을주며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내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범은 이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으나 곰은 삼칠일 동안 조심하여 웅녀라는 사람이 되었다. 이후 환웅은 웅녀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단군이다. 단군은 고조선을 세우고 3,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 ①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
- ②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존재하는 시간
- ③ 신과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 낸 시간
- ④ 인간이 경험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 ⑤ 인간 행동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시간

소요 시간
⋮

[정답] 1 ⑤ 2 ② 3 ①

[1] ⑤ 5문단을 보면, 엘리아데에게 있어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자연적, 육체적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사건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을 보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화를 합리성과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리스 철학에서 신화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고대인들이 신화적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연할 대상으로 생각한 반면, 현대인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회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③ 1문단을 보면,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했고, 엘리아데는 그 시대에 나타났던 전체주의와 1, 2차 세계 대전을 목도했다고 했으므로, 엘리아데가 살았던 시대가 곧 20세기 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④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고대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이는 '속'에 대한 거부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2] ② '마늘'과 '썩'은 음식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만으로는 성스러움을 부여받을 수 없고,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아야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마늘'과 '썩'은 고풍을 인간으로 바꾸게 만든 초월적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속성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① 2문단을 보면, 엘리아데는 신화를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엘리아데의 신화론에 따르면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단군 신화의 내용은 실재하는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엘리아데는 신화란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인간행동,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것은 곧 그 신화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제도가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④ 신화는 인간 행동의 모범이 되는 것이므로 고대인들은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엘리아데는 현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을 보면, 자연의 산물이나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물들은 그것들이 얼마만큼 초월적 존재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실재성을 얻게 된다고 했으므로, 오늘날 굿과 같은 제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칼, 거울, 방울이 단군 신화에서 환웅에게 준 천부인 세 개와 연관된다고 판단한다면, 실재성을 얻은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3] ① 앞뒤의 맥락을 보면 '역사적 시간'은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초월성을 결여한, 즉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속'된 시간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②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원형적 시간과 단절된 것으로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신과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 낸 시간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된 시간이므로, 이는 엘리아데가 생각하는 신화적 시간에 가깝고 역사적 시간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인간이 경험했던 사건은, 고대인에 의한 '신화적 사건의 재연'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인간 행동의 의미와 가치는 신화적 사건을 반복하는 데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